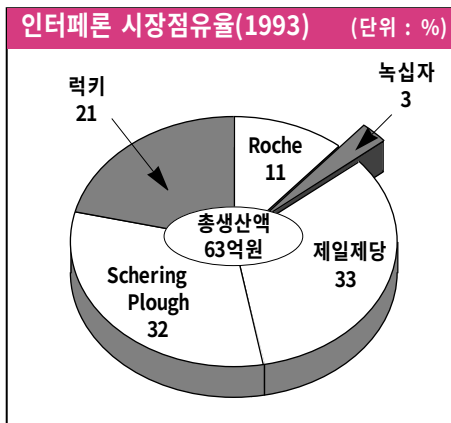


인터페론 수요 점증

적응증 다양화따라 ... 국내기업 속속 개발

주로 항바이러스 작용기전을 갖는 인터페론이 항종양 및 면역조절작용 분야까지 적응증이 확대·보편화되면서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B형·C형 간염치료제인 인터페론은 40~50%의 치료율과 200~300만원대의 치료비용 때문에 그동안 한정된 계층에서만 사용됐으나 제일제당 등 국내기업들에 의해 국산화에 성공, 가격도 저렴해지고 용도도 종양 및 백혈병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수요계층이 폭넓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페론은 현재 암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B형간염 보균자도 5만 6만명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페론이 고가라는 점에서 의료보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거대 시장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매년 20~30%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터페론 시장은 50억원규모로 수입품과 국산품이 거의 절반씩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일제당·럭키에 이어 녹십자까지 속속 인터페론 개발에 성공하자 원개발기업인 Schering Plough 및 Roche는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Roche는 제일제당에 특허침해 소송까지 내는 상태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3년 인터페론 국내 총 생산액은 63억원으로써 각 기업별 시장점유율은 제일제당 33%, Schering Plough 32%, 럭키 21%, Roche 11%, 녹십자 3%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페론 생산액 63억원 가운데 알파가 58억원, 베타 2억원, 감마 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페론 알파 및 감마는 유전자 재조합 제품이고 베타는 백혈구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인터페론으로 Vial당 9만8000원씩 하는 고가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페론 시장은 제일제당이 베타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한국루셀이 인터페론 베타를 수입·판매할 예정으로 있으며, 1~2개 국내 기업이 참여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8/22>